

송원대, 철도 전문가 인재 양성 '자리매김'

사립대학 최초 관제교육기관 개소
'산학일체형' 전문인력 양성 주력
코레일·산업체 등 관련 분야 취업

호남 유일의 철도특성화 대학인 송원대학교가 사립대학 최초로 철도관제교육기관을 개소하는 등 철도 기관사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6일 송원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대학 청솔관입구에서 국토교통부 지정 철도관제교육훈련기관 개원식이 열렸다.

이날 개원식은 학교법인 송원대 고재철 이사장, 송원대 최수태 총장을 비롯한 본부처장, 광주송정역 전삼수 역장, 한국철도공사 호남차량정비단 허연 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개원식은 철도관제훈련실에서 결과보고 및 감사패전달, 축사, 철도관제교육기관을 둘러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로써 송원대는 국토교통부 지정 철도운전



26일 오전 송원대 청솔관입구에서 국토교통부 지정 철도관제교육훈련기관 개원식이 열렸다. /송원대 제공

교육기관에 이어 철도관제교육기관까지 사립대학 전국 최초로 운전과 관제전문 인력을 동시에 양성할 수 있는 대학이 됐다.

송원대는 지난 1996년 사립대학 최초로 철도경영학과를 설립해 지난 26년간 많은 철도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철도운전훈련기관인 철도아카데미를 개소한데 이어 지난 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관제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송원대는 철도관제훈련기관을 운영해 미래 물류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철도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기초소양 및 인성 함양을 위한 기초학습 역량강화 교육 ▲산업체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전문 철도인 양성을 위한 산학 일체형 실무인력 양성 교육 ▲학생들의 취업강화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철도전문가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겸비한 인재양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송원대 졸업생들은 현재 철도차량정비 및 역무원, 철도기관사, 철도승무원, 철도 관련 산업체, 철도공사 자회사 및 금융기관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실제로 코레일과 광주도시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포스코, 한국전력 등 대기업에 역무원, 기관사, 관제사 등으로 졸업생 20명이 합격하는 등 학생들에게 각광받는 직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개원식에 참석한 고재철 송원대 이사장은 "지역의 명문사학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철도전문인력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최수태 송원대 총장은 "이제 전국 사립대 최초 철도 운전과 관제교육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대학으로,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으뜸가는 철도특성화 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동강대 '직업군인 요람' 우뚝

광역시권 최초 육군 RNTC 유치

동강대학교가 광역시권 전문대학 최초로 육군 부사관학군단의 합참 발걸음을 시작하며 직업군인 요람으로 발돋움했다.

26일 동강대에 따르면 학생군사교육단은 지

난 22일 본관 5층 나이팅게일홀에서 '동강대학교 제305학생군사교육단 창설식'을 개최했다.

이날 창설식에는 이민숙 총장과 정정숙 육군 부사관학교장, 교수부장, 육군 주임원사, 인접 부대 주임원사 등이 참석해 RNTC 출발을 축하했다.



창설식은 예비역 교관(예비역 원사 강전역)의 창설 경과보고, 부대신고, 부대기수여, 정정숙 육군부사관학교장 축사, 이민숙 총장 기념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고 학군단 현판식도 이어졌다.

동강대는 지난해 국방부 정책사업인 육군 RNTC를 광역시권 전문대학 최초로 유치했다.

RNTC는 설치대학의 전문대 학생을 대상으로 부사관 학군단 후보생을 1학년 1학기 때 선발, 3학기 동안 기초 군사훈련을 교내교육 및 입영훈련 과정을 거쳐 대학 졸업 후 임관시킨다.

이민숙 동강대 총장은 "동강대학교 제305학생군사교육단 창설식을 통해 군과 대학의 전통을 세우고 핵심 인재가 될 동강대학교 후보생들의 첫 발걸음을 축하한다"며 "후보생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군과 대학의 자랑으로 성장할수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했다.

/최환준 기자

전남교육청, 교육용 AI로봇 10대 보급

전남도교육청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도교육청, AI 중심고등학교(4교), SW체험센터(5센터)에 교육용 AI 로봇 10대를 보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번 교육용 AI 로봇 보급을 통해 기관별 특성에 맞는 미래교육 모델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본청의 경우 교육용 AI로봇을 민원인 안내와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전남교육 홍보에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사진>

AI 중심고등학교는 로봇, 자율주행 동아리 운영 등 학생들의 진로탐색 교육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SW체험센터에서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AI 음성대화, 영어교육, 자료검색 등 미래 로봇 사회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는 수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미래사회 디지털 대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교실 수업 개



선, 질문·탄성·웃음이 있는 수업지원을 이룸으로써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전남형 인재양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환준 기자

시교육청, 학교운동부 대상 스포츠 인권교육

광주시교육청은 초·중·고교 학교운동부 45교를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운동부 스포츠 인권교육'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스포츠 인권교육은 오는 9월 28일까지 진행되며, 학교운동부 인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낸 학교운

동부 학생들을 위해 기존의 강의 중심교육에서 벗어나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웃음 치료 중심 교육을 제공할 방침이다.

스포츠 인권교육은 학생선수 뿐만 아니라, 학교운동부 지도자와 학부모도 참여한다.

학교운동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관한 상황을 함께 이야기하고, 웃음 치료 활동을 통

해 인권침해에 대한 올바른 대처능력을 기르는 활동으로 진행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코로나로 지친 학교운동부 학생들을 위해 웃음 치료 중심의 실질적인 스포츠인권교육활동으로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학교운동부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인권이 보호되는 학교운동부, 안전한 학교운동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동신대 선도연구센터, 한의 치료기술 개발 연구

동신대학교 선도연구센터는 최근 대학 대정 4관 1층 강의실에서 '비위 조절기반 Gut-Brain 시스템 제어 한의 치료기술 개발 킥오프 미팅'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주희 동신대 총장, 최효승 산학협력단장, 이미현 선도연구센터장을 비롯해 사업 참여 교수, 참여 기관 연구책임자와 연

구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센터 전체 연구마 일스톤,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1차 년도 사업 내용, 추진 일정을 공유하고 기관 간 연계와 효율적인 연구 수행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동신대 선도연구센터는 '2022년 집단 연구사업'의 선도연구센터 기초의과학 분야 주관연구기관에 선정됐다. /최환준 기자

우리지역 광주·전남 제품
지역인재 고용창출에 앞장서는 기업

스탠드형
사무실, 가정용
어린이집, 유치원 특화제품

벽걸이형
경로당, 병원, 노인복지시설
사무실, 초중고 학교용 특화제품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

DK 디케이 주식회사